

자활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 돕는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활생산품 판로 확대 등

4개 분야 32개 과제 추진

광주시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 좋은 더 내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본 계획은 '저소득층 자립을 통한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자활생산품 판로확대를 목표로 4개 분야, 32개 세부 추진 과제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종합적인 정책 기반 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4개 분야 중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및 자기진작방안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과 사례관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여자 혁신교육장 설치 및 전문자격증 취득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자활한마당 행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자기진작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자활장려금·자산형성 자금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자활근로자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 자활장려금 지원 ▲자립 및 탈수급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자금으로 희망키움통장 4종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기업 육성 등 광주형 복지일자

확대사업으로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환경개선 및 사무공간 지원 ▲창업 및 사업자금 지원과 전세집포 임차보증금 지원 ▲자활사업단과 기업에 HACCP 인증지원 ▲자활지원센터 신축지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활기업에 대한 규모화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기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이밖에 자활생산품 판로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분야 사업으로는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소소드림' 활성화 ▲자활사업단 및 기업의 유통 및 마케팅 전담인력 운영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증축 ▲대인에 술야시장 '별장' 등 부스운영 ▲공공기관 판매장 입점 ▲공공기관 연계사업 개발 및 생산품 공공구매 ▲인터넷 쇼핑몰 구축·운

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활사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소소드림' 개발과 올해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The 드림 채움장터' 증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내 자활카페 '달라잇가든' 오픈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일용 시 복지건강국장은 "가난으로 좌절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지원·협력과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한 걸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생활안내서 1300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배포

광주시는 지역 생활 정보를 담은 '2019 광주생활안내서' <사진>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주민에게 광주의 생활 정보를 안내하려 만들어졌다.

광주시는 1300부를 제작,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생활편의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명소, 축제, 음식점, 캠핑, 야영장,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광주의 생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생활안내서를 제작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29명 모집

광주시는 16일부터 광주 5개 자치구와 함께 하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구별 채용인원은 모두 29명으로 동구와 서구 각 4명이고, 남구 5명, 북구 9명, 광산구 7명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자치구에 소속돼 세무공무원과 함께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남부안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활동기간은 16일부터 11월 중순까지로, 근무시간 및 기간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전화남부안내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4억4000만원, 체납차량 3293대의 번호판 영치로 총 37억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

북구, 4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9억 확보

광주시 북구가 2019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39억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북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북구 지역 현안사업 3개, 재난안전사업 1개 등 총 4개 사업 3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역 현안 또는 재난·안전 사업 등 사용 목적을 지정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이번에 교부받은 사업비는 ▲중효동 중효분교 진입로 확장 6억 원 ▲본촌산

단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 10억 원 ▲북구 의회동 신축 16억 원 ▲문흥동 샛터코어 사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 7억 원이다.

북구는 중효동 중효분교 진입로를 정비해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본촌산업단지 내 노후 도로와 인도를 정비해 산단 내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흥동 샛터코어 사거리 주변 하수도를 집중 정비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와 싱크홀 발생 등 재난·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립도서관

17일부터 이틀간

회원증 발급 서비스

광주시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 기념해 주중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과 직장인들을 위해 시민들을 찾아가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진행한다. 회원증은 광주지역 23개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회원증으로, 신분증 또는 학생증,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시립도서관은 독서의 달 행사로 테마도서 전시 및 강연, 미니 극장 상영, 연체자 특별 사면, 추천 도서목록 배부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정보동 및 기택수씨 등 강력한 체납채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다"면서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



파리 '2019 메종&오브제'의 광주 공예품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9 메종&오브제'에서 외국인들이 '광주 공예상품'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 우수 공예상품 인증브랜드 '오렌즈' 상품(17개 상품)과 지역 4개 공방(보안봉, 일로일로, 라벨, 화탁)의 12개 상품이 참여해 지역 공예상품의 해외진출 가능성과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 하반기 민주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18일부터 운영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019년 하반기 민주시민의식 함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교육은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과 광주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시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민대학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번 교육은 딱딱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참여자 간 토크쇼 형식의 참여형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동행하는 시민대학,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과 민주인권 교육, 모두에게 페미니즘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등을 편성했다.

동행하는 시민대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과정으로 강의와 대화, 현장답사

행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열린다.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과 민주인권 교육은 한국 근현대사 주요 국가폭력이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체험-예술 등 복합형 교육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카페 '짜뭇사뭇'에서 운영한다.

모두에게 페미니즘을,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페미니즘과 인권 평등의식이 담긴

긴 성교육 등에 대한 교육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 청년인문공간 러브애프리에서 실시한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은 일상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1월11일부터 3주 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한다.

광주 시민대학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충장축제 '좋아요' 누르고 선물 받아주세요

20일까지 응원 댓글 이벤트

광주시 동구가 '제16회 충장축제' 성공기원 '응원 댓글 이벤트'를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동구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추억의 충장축제' 주제 정답과 응원 댓글을 남기면 된다.

동구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모두 42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상품권(피자 또는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공유하기·친구태그를 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올해 충장축제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